



주 제:	“ 부부의 결합 ”	“연중 제 27 주일 “	2009년 10월 4일
복음 묵상:	[마르 10,2-16]	[창세 2,18-24]	[히브 2,9-11]

혼인미사 주례 때 저는 강론 끝에 꼭 이 같은 말을 합니다.
 “태어날 땐 서로 다른 장소에서 태어났지만 이젠 같은 장소에 있을 것이며, 태어날 땐 다른 하늘을 보고 태어났지만 앞으로는 같은 하늘을 보게 될 것이며, 태어날 땐 서로를 모르고 태어났지만 앞으로는 서로를 알아가게 될 것이며, 태어날 땐 다른 부모를 섬겼지만 이젠 한 부모를 섬기게 될 것이며, 이제껏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는 두 발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발걸음에 주님의 무한한 행복이 깃들길 기도드립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할 때 흔히 짐승만도 못하다는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는 암컷과 수컷의 부부애가 사람의 경우를 뛰어넘는 예가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물총새가 그러합니다. 물총새는 대양을 횡단할 때에 반드시 암컷과 수컷이 한 쌍이 되어 비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비행을 하다가 암컷이 지치면 수컷이 암컷을 업고 비행하며 체력을 회복한 암컷이 다시 수컷을 업고 비행하기를 반복하며 목적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우리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에로의 비행은 부부중 어느 한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짐을 서로가 함께 나누며 지고갈 때 사랑의 비행이 시작될 수 있고,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을 볼 때 놀라게 되는 것은 얼굴이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한지붕 아래 한술밥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성격을 맞추려다 보니 얼굴까지도 닮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우연히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둘 사이에는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작용하여 서로가 만나게 되었고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부의 결합은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를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마르 10,7-9)
 (배 광하 신부님 강론 중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조정자 율리아나 자매님은 10/2 일 부터 10/30 까지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점심 초대: 이재섭 니콜라스 형제님과 이 필로메나 부부님이 모든 성가대원들을 점심에 초대하셨습니다.
 • 언제: 10월 4일 교중 미사후
 • 어디서: [Sylvan Park, Sunnyvale, CA](#)

SF 매스터코랄 창단 20주년 기념 연주회
 • 김인숙 세실리아 성심 성가대 지휘자님 소속되어 있으며 출연합니다.
 • 언제: 10월 11일 오후 7시
 • 어디서: SF 헵스트 극장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님 초청 일일 성가 피정
 • 누가: 예수 고난회 강수근 신부
 • 언제: 2009년 10월 31일(토) (8:30 AM- 6:00 PM)
 • 어디서: San Francisco



그 때에 바리사이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그런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 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추석은...♡

-김사빈-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집 뒷마당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보름달이다.

달밤에 달구 잡기 하다 넘어져
무릎이 깨어져 울던 일곱 살이다

한참 잊고 살다 생활에 지쳐
고향 생각나면 달려가던
뒷동산에 만나던 첫사랑이다.

큰어머니가 해주던 찹쌀 강정과
송화 가루로 만든 다석이다

울담 안에서 오가던 정을
건네주던 푸성귀 같은
내 사랑 여인아

책갈피 속에 곱게 간직한
진달래 꽃잎 같은 내 친구 야

괴롭고 힘들 때
영혼의 안식처
내 쉼터인 것을



오늘의 말씀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전디어 뵙니다(1 코린 13.7)."